

## 중·고등학교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요인: 개인, 가정환경, 학교요인의 분석

김 혜 은<sup>†</sup>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정 정 숙

목포유달단기여자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가출경험 청소년들의 가정복귀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과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요인, 학교요인을 집단별로 비교하고 이들 요인들이 중·고등학교 가출경험 청소년들의 가정복귀여부를 예측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전국 42개소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227명과 12개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 중 가출경험이 있으나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 211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정복귀여부와 학교급을 기준으로 이원변량분석과  $\chi^2$ 검정을 통해 집단 간 비교를 하였고, 가정복귀여부를 예측하는 정도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정복귀여부에 따라서는 공격성, 가족구조,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의 애정, 방임, 아버지의 학대와 또래관계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학교급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정복귀여부에 대한 예측력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정환경요인의 예측력이 가장 컸는데 이중 결손가정은 가정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정경제수준은 가정복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의한 가정복귀여부에 대한 예측력의 차이는 중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과 방임, 어머니의 방임과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변인인 반면에 고등학교 가출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중·고등학교 가출청소년, 가정복귀요인,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요인

---

<sup>†</sup> 교신저자: 김혜은, 목포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E-mail: hokim@mokpo.ac.kr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가출경험률은 2012년 12.2%로 해당연도 재학생 수 377만명에 대입하면 약 46만 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출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2년에 비하면 4.7%가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가출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출충동을 느낀 일이 있는 경우는 표집대상 중학생의 46%, 고등학생의 52%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백혜정, 방은령, 2009), 이는 중·고등학교 재학생들 두 명 중 한 명 꼴로 가출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청소년가출이 더 이상 일부 '문제학생들'의 개인적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출청소년의 규모 문제 외에도 근래에 들어 청소년가출 양상이 저연령화, 반복화, 장기화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가출을 감행한 후 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들은 각종 유해환경이나 비행에 접할 기회가 많고 귀가 후 처벌을 두려워하다 보면 귀가를 미루게 되면서 만성가출자로 전락하기 쉽다. 차명호, 양정국과 정경용(2010)에 의하면 6회 이상의 반복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한상철(2008)은 가출횟수의 증가와 함께 가출청소년들의 비행행위의 심각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복적인 가출을 하거나 가출 기간이 길어진 만성가출집단이 가장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이상무, 2012) 청소년가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다

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가출의 저연령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청소년컴퓨터 이용 청소년들의 경우, 2007년에는 16세 이하가 41.7%이던 것이 2010년에는 57.3%으로 증가하였고(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들의 첫 가출 시기를 비율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학교 1, 2학년이 본격적으로 가출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되었다(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에 대한 보호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할수록 위험상황에 노출되고 따라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가출의 저연령화는 사춘기가 점점 일찍 시작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김향초, 2009).

청소년가출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영역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정경은과 문성호(2008)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학술지에 수록되어 있는 청소년가출 관련 논문 주제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가출로 인한 문제가 18편(33.3%)으로 가장 많았고, 가출원인을 규명한 연구가 16편(29.6%), 임상실천 및 컴퓨터와 같은 대책에 관한 연구가 13편(24.1%), 기타 1편(1.9%)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근래에 들어 가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출생활을 청산하게 하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따라서 청소년가출의 사후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예방책 마련을 위해 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가출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가출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탐색한다. 개인적 요인에는 인구학적 특성(문재우, 2012; 홍세희, 노연경, 박민선, 2010), 비

행특성(이상무, 남상희, 2012; 주동범, 임성택, 2009) 외에도 심리적 특성이 포함된다. 이 중 연령에 따른 비교를 한 연구들에서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가출충동 경향이 더 높은 반면 가출경험은 고등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문재우, 2012),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복가출 내지는 만성가출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상무, 2012). 한편 심리적 특성으로는 불안, 우울(문재우, 2012; Khurana, Sharma, Jena, Saha, & Ingle, 2004; McCarthy & Thompson, 2010), 정서적 스트레스, 자존감, 통제성(현은민, 2000; Yoder, Hoyt, & Whitbeck, 1998) 등이 분석되었다. 환경적 요인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중에서도 가정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색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가족구조에 대한 탐색 즉 양친가족 여부(문재우, 2012, 오승환, 2010; Thompson & Pillai, 2006) 외에도 가정환경의 기능적 측면에서 가족지지, 부모학대와 방임(이상무, 남상희, 2012; 이종화, 김경희, 김희영, 정혜경, 2006; Slesnick & Prestopnik, 2004)과 같은 양육태도에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에게서 가족에 대한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Stein, Milburn, Zane, & Rotheram-Borus, 2009). 학교요인으로는 체벌, 학업성적과 교사관계가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박명숙, 2006, 오승환, 2010; 정경은, 문성호, 200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가출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이중 부모학대, 비행, 우울, 불안과 같은 요인은 위험요인으로, 그리고 자아존중감, 가족지원, 교사의 지원은 보호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청소년의 만성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출을 일으키는 다양

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ompson, Zittel-Palamara와 Maccio(2004)는 가출청소년의 위험요인의 제거와 보호요인의 강화를 통한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가출의 반복화,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한 가출청소년들의 조기 가정복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많은 연구들이 가정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예를 들어 연령, 대인관계기술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에서는 가출 당시 연령이 높으면 귀가를 할 확률이 낮아지는 반면에(Milburn, 2007; Thompson, Kost, & Pollio, 2003), 국내 연구들에서는 반대로 가출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귀가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방은령, 2003). 이는 외국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가를 하지 않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생 연령이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정 내의 문제를 견디어낼 수 있는 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은영, 송민경, 2008). 한편 대인관계기술이 높은 경우 외국에서는 가출 후에도 다른 가출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귀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Johnson, Whitbeck, & Hoyt, 2005).

이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 외에도 가정복귀와 관련된 가정환경요인은 가족구조와 경제적 여건이다. 양친가정 출신 청소년들이 귀가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결손가정 출신

의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Dekel, Peled, & Spiro, 2003; Peled, Spiro, & Dekel, 2003; Thompson et al., 2003).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신체적, 성적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가출을 시도한 경우에는 가정으로의 복귀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Nebbitt, House, Thompson, & Polloi, 2007).

한편 국내에서는 성공적인 귀가요인을 분석한 질적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가출 후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지, 친구나 교사와 같은 지지체계가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은령, 2003; 이현지, 2005).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출경험에 대한 회고내용이 분석되었고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복귀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 외에도 김은영과 송민경(2008)은 단기쉼터에 입소한 남자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학업상태, 대인관계기술,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족구조, 가출동기, 가출횟수, 쉼터입소경로가 가정복귀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퇴상태인 경우와 대인관계기술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귀가 가능성이 높고 부모갈등으로 인한 가출, 결손가정의 경우, 기관의뢰에 의해 입소한 경우 외에도 가출기간이 길수록 귀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단기쉼터 남학생만의 사례관리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한 연구라는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래에 들어 청소년가출의

저연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에 대한 발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에 대한 연령별 혹은 학교급을 기준으로 비교를 한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경험이 있으나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들과 현재 가출상태이면서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들을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가정복귀 요인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중학교 청소년과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차이로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청소년 가출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가정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요인으로 분류하고, 이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탐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가정으로 복귀한 가출경험 청소년과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이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2.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출경험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요인이 가정으로의 복귀여부를 예언하는 예측력에 차이를 보이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전국 42개소의 쉼터에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 응답된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복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남의 중·

소도시의 12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동 설문지는 2012년 4월 25일부터 2012년 5월 25일까지 전체적으로 2,517부가 배포되어 2,375부가 수거되었고 이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중 최근 1년 간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총 438명이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을 제한한 것은 가출경험 청소년들의 복귀기간을 1년이 넘지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가정으로의 복귀 이후 학교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이다. 연구대상의 학교급 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청소년은 174명이었으며, 고등학교 청소년은 264명이었다.

이들 중 부모(친부모, 편부모, 계부모 포함) 혹은 조부모와 같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은 211명이었고, 현재 가출 중이어서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은 227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48.2%와 51.8%에 해당되며 조사 당시 모두 학교에 재학중이었다. 한편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가출횟수를 살펴보면 중학교 복귀 청소년 중 1회 가출경험자는 35명(40.7%), 2회 이상 가출경험자는 56명(59.3%)이었던 것에 반해, 쉼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73명(83.0%)이 2회 이상 가출을 경험하였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복귀집단 중 52명(41.6%)이 1회 가출경험을 하였고 73명(58.4%)

이 2회 이상 가출 경험을 한 반면 쉼터 청소년들 중 117명(84.8%)이 2회 이상 가출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성별, 나이 외에도 가정복귀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동거인에 대한 문항이 제시되었고,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요인, 학교요인들에 대해 탐색하기 위한 문항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개인적 요인

청소년 가출의 개인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우울감, 충동성,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고(Robins, Hendin, & Trzesniewski, 2001 재인용) Cronbach's  $\alpha$  값은 .84이었다. 우울감은 이애령(2004)의 척도 중 7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2이었다.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운정(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4였다. 공격성 척도는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정·보완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다. 개인적 요인 측정 문항들은 모두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 가정환경요인

가정환경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가족의 구조

표 1. 연구대상의 특징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복귀	86	49.4	125	47.3	211	48.2
쉼터	88	50.6	139	52.7	227	51.8
전체	174	39.7	264	60.3	438	100

와 가정경제 상태를 묻는 질문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묻는 척도가 사용되었다. 부모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1999)이 개발한 척도 중 애정 6문항, 학대 6문항, 과잉간섭 6문항, 방임 5문항 등 4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23문항이 사용되었고 이들 하위영역의 Cronbach's  $\alpha$  값은 .77에서 .91 사이에 분포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평정하도록 하였고 결손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함께 거주하거나 자주 접촉을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 학교요인

학교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우관계, 교사와 학교통제 지각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우관계 척도는 교내 친구와의 결속과 관련된 성향을 측정하고 총 4문항이며 교사와 학교의 규율 및 통제적인 분위기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척도는 각 3문항으로 안창규, 문선화와 전윤식(1995)의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69, .84, .68이고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 자료의 처리

가정복귀여부에 따른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학교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가정복귀여부와 학교급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하였고 가정환경요인 중 가족구조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차이는  $\chi^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변인들의 가정복귀

여부에 대한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Win 21.0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 결 과

가정으로 복귀한 가출경험 청소년과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적 요인에서는 가정복귀여부에 따라 공격성에서만 차이를 보여서 가정으로 복귀를 한 청소년들이 현재 가출 중이면서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429)=9.17, p<.01, \eta^2=.03$ . 학교급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자아존중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집단이 중학교집단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429)=4.06, p<.05, \eta^2=.01$ . 학교급과 가정복귀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자아존중감에서만 나타났는데,  $F(1, 429)=4.09, p<.05, \eta^2=.01$ , 중학교 가출경험 집단의 경우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들의 자기존중감이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F(1, 170)=3.90, p<.05, \eta^2=.03$ , 고등학교 가출경험집단의 경우 쉼터집단과 복귀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259)=.52, n.s$ . 한편 개인적 요인에서 확인된  $\eta^2$ 의 값들을 Cohen(1992)이 제시한 기준으로 해석하면 .01 이상이어서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15보다 작아 집단 간 차이는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단 간 가족구조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표 2. 학교급과 가정복귀여부에 따른 개인적 요인의 비교

구분	복귀		쉽터		전체		
	M	SD	M	SD	M	SD	
자 아 존 중	중	2.82	.65	2.60	.69	2.71	.70
	고	2.83	.64	2.89	.65	2.86	.64
	전체	2.83	.64	2.86	.68	2.84	.66
우 울 감	중	2.30	.85	2.55	.87	2.42	.87
	고	2.48	.69	2.44	.74	2.47	.71
	전체	2.41	.77	2.48	.79	2.44	.78
충 동 성	중	2.74	.71	2.95	.62	2.84	.67
	고	2.95	.65	2.90	.67	2.92	.66
	전체	2.87	.67	2.92	.66	2.89	.67
공 격 성	중	2.24	.70	2.49	.68	2.36	.70
	고	2.21	.59	2.39	.69	2.31	.64
	전체	2.23	.63	2.42	.69	2.33	.66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4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구조에 있어 가정으로 복귀한 집단과 쉽터에 머무르는 집단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복귀한 집단의 경우 양친부모 가정 출신이 78.3%였지만 쉽터집단의 33.2% 만이 양친부모가정 출신이고, 결손가정 출신은 66.8%를 차지하고 있었다,  $\chi^2(1, 421) = 84.89$ ,  $p < .001$ .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복귀한 집단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하'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22.4%였으나 쉽터에 머무르는 집단은 54.7%에 달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 435) = 47.56$ ,  $p < .001$ .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MANOVA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복귀여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경우  $F(4, 377) = 10.57$ ,  $p < .001$ , *Wilks's*  $\lambda = .90$ 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경우  $F(4, 372) = 14.15$ ,  $p < .001$ , *Wilks's*  $\lambda = .99$ 였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ANOVA분석 결과는 표 5

표 3. 학교급과 가정복귀여부에 따른 가족구조의 비교

구분	복귀		쉽터		전체		
	N	%	N	%	N	%	
중 학 교	양친부모	71	84.5	25	30.5	96	57.8
	결손가정	13	15.5	57	69.5	70	42.2
	전체	84	100	82	100	166	100
고 등	양친부모	91	74.0	46	34.8	137	53.7
	결손가정	32	26.0	86	65.2	118	46.3
	전체	210	100	156	100	255	100
전 체	양친부모	162	78.3	71	33.2	233	55.3
	결손가정	45	21.7	143	66.8	188	44.7
	전체	207	100	214	100	421	100

표 4. 학교급과 가정복귀여부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수준 비교

구분	복귀		쉽터		전체		
	N	%	N	%	N	%	
중 학 교	하	11	12.8	47	54.7	58	33.7
	중·상	75	87.2	39	45.3	114	66.3
	전체	86	100	86	100	172	100
고 등	하	36	29.0	76	54.7	112	42.6
	중·상	88	71.0	63	45.3	151	57.4
	전체	124	100	139	100	263	100
전 체	하	47	22.4	123	54.7	170	39.1
	중·상	163	77.6	102	45.3	265	60.9
	전체	210	100	225	100	435	100

표 5. 학교급과 가정복귀여부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의 비교

구분	복귀		쉽터		전체		
	M	SD	M	SD	M	SD	
애정	중	2.71	.87	1.94	.89	2.35	.96
	고	2.40	.85	2.07	.89	2.23	.88
	전체	2.53	.87	2.02	.89	2.28	.90
학대	중	2.20	.79	2.62	1.03	2.40	.94
	고	2.19	.86	2.39	1.00	2.29	.93
	전체	2.19	.84	2.47	1.02	2.31	.93
과잉 간섭	중	2.21	.70	2.33	.89	2.25	.80
	고	2.39	.81	2.34	.88	2.36	.85
	전체	2.31	.77	2.33	.88	2.32	.85
방임	중	2.05	.80	2.39	.76	2.21	.79
	고교	2.09	.70	2.35	.86	2.23	.79
	전체	2.09	.73	2.35	.82	2.22	.79

와 6과 같다.

복귀 청소년들이 쉽터 청소년들에 비하여 아버지의 애정과 어머니의 애정에 대하여 더 높게 지각하는 반면에,  $F(1, 368)=36.58, p<.001, \eta^2=.13$ ;  $F(1, 358)=51.46, p<.001, \eta^2=.13$ , 아버지와 어머니의 방임,  $F(1, 362)=11.06, p<.01, \eta^2=.02$ ;  $F(1, 360)=11.63, p<.001, \eta^2=.03$ , 그리고 아버지의 학대의 경우 반대로 쉽터 청소년들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F(1, 365)=9.71, p<.01, \eta^2=.02$ . 이 중 아버지, 어머니의 애정의  $\eta^2$ 는 중간정도의 효과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Cohen, 1992). 학교급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과 가정복귀의 상호작용효과는 아버지의 애정에서만 나타났다,  $F(1, 368)=5.65, p<.05, \eta^2=.01$ .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학교 청소년들이나 고등학교 청소년들 모두 복귀

표 6. 학교급과 가정복귀여부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의 비교

구분	복귀		쉽터		전체		
	M	SD	M	SD	M	SD	
애정	중	2.79	.85	2.20	.92	2.51	.93
	고	2.69	.79	2.10	.93	2.40	.90
	전체	2.73	.80	2.15	.93	2.45	.91
학대	중	1.98	.79	1.96	.94	1.97	.86
	고	1.90	.74	2.04	.92	1.97	.84
	전체	1.94	.76	2.00	.93	1.97	.84
과잉 간섭	중	2.37	.75	2.25	.82	2.31	.78
	고	2.39	.77	2.27	.90	2.33	.84
	전체	2.38	.77	2.25	.86	2.32	.82
방임	중	1.92	.74	2.17	.74	2.04	.74
	고교	1.92	.63	2.23	.86	2.07	.78
	전체	1.92	.66	2.20	.81	2.06	.76

청소년들이 쉽터 청소년들보다 아버지가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응답했지만,  $F(1, 128)=28.62, p<.001$ ;  $F(1, 138)=8.64, p<.01$ , 이 차이가 중학교 집단에서 고등학교 집단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학교요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우관계에서만 가정복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으로 복귀한 집단이 쉽터집단에 비하여 교우들과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428)=3.98, p<.05, \eta^2=.01$ . 이에 반하여 교사에 대한 지각이나 학교가 자신들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요인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출경험 청소년의 가정복귀에 대한 개인적



표 7. 학교급과 가정복귀여부에 따른 학교요인의 비교

구분		복귀		쉽터		전체	
		M	SD	M	SD	M	SD
교우 관계	중	2.51	.65	2.35	.75	2.42	.70
	고	2.52	.59	2.42	.61	2.47	.60
	전체	2.51	.61	2.39	.67	2.45	.64
교사 지각	중	2.35	.86	2.52	.89	2.43	.87
	고	2.36	.81	2.41	.82	2.39	.82
	전체	2.36	.83	2.48	.87	2.42	.85
학교 통제	중	2.26	.72	2.18	.85	2.22	.79
	고	2.30	.73	2.18	.74	2.24	.74
	전체	2.28	.73	2.17	.79	2.23	.76

요인, 가정환경요인, 학교요인의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오승환, 2010) 제시된 영향력을 기준으로 개인, 가정 및 학교환경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는데,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를 1로, 쉽터에 머무르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청소년 집단에서는 1단계에 개인적 요인들을 투입하여 가정으로의 복귀 여부를 예측한 모형은  $\chi^2$ 값이 5.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정환경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예측력을 검증하였을 때 1단계 모형의  $\chi^2$ 값에 89.67이 더해졌으며 이 변화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이었다. 즉 가정환경요인이 더해졌을 때, 개인변인만 투입한 것보다 중학교 청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할지 여부에 대해 더 높은 예측력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학교요인까지 투입한 3단계 모형은 2단계 모형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모델은 85.6% 정확도로 복귀집단과 쉽터집단을 구분할 수 있었고 Nagelkerke  $R^2$  값은 .69였다.

고등학교 청소년 집단에서는 1단계 모형은  $\chi^2$ 값이 11.89로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가정환경요인을 추가하였을 때  $\chi^2$ 값이 64.79로 .0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력을 지니고 있었다. 3단계 모형은 2단계 모형과 비교하여 예측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표 8. 가정복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적합도

집단	구분	model $\chi^2$	step $\chi^2$	df	-2ll	Nagelkerke $R^2$	집단구별 정확도(%)
중학교	모델 1	5.79	5.79	4	182.39	.06	61.2
	모델 2	95.46***	89.67***	14	92.71	.67	84.2
	모델 3	100.27***	4.81	17	87.91	.69	85.6
고등학교	모델 1	11.89*	11.89*	4	232.41	.12	67.5
	모델 2	64.79***	52.90***	14	176.79	.41	75.5
	모델 3	70.93***	6.13	17	170.49	.42	76.5

\* $p < .05$ , \*\*\* $p < .001$

모델 1: 개인적 요인만 투입, 모델 2: 개인적요인+가정환경요인 투입, 모델 3: 개인적요인+가정환경요인+학교요인 투입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모델은 76.5% 정확도로 복귀단과 쉽터집단을 구분할 수 있었고 Nagelkerke  $R^2$  값은 .42였다.

각 독립변인들이 청소년들의 가정복귀여부를 예측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구조와 어머니 방임은 중학교 청소년들의 가정복귀 가능성과 모두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결손가정 출신일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방임을 할수록 복귀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구조의  $Exp(B)$  값은 .02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손가정을 1로 양친가정을 0으로 코딩하여 산출한 값으로 결손가정 출신의 중학교 청소년들이 가정복귀를 할 가능성은 양친가정 출신의 2%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 양친가정 출신인 경우 결손가정 출신에 비해 가정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50배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애정과 방임은 중학교 청소년들의 가정복귀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표 9. 가정복귀에 대한 개인, 가정 및 학교요인의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변수	중학교 청소년				고등학교 청소년			
	<i>B</i>	<i>S.E.</i>	<i>Wald</i>	<i>Exp(B)</i>	<i>B</i>	<i>S.E.</i>	<i>Wald</i>	<i>Exp(B)</i>
차이존중감	-.48	.51	.91	1.63	-.13	.34	.15	.87
우울감	.19	.44	.19	.82	.16	.34	.21	1.16
충동성	-.38	.65	.34	1.47	.71	.35	4.11*	2.03
공격성	-.07	.53	.02	1.07	-.90	.35	6.56**	.40
가족구조	-3.72	.84	19.51***	.02	-1.09	.41	7.29**	.33
가정 경제 수준	1.68	.63	7.18**	5.33	.87	.40	4.90*	2.40
아버지 애정	2.06	.52	16.05***	7.90	.22	.26	.75	1.25
아버지 학대	-.84	.46	3.32	.43	-.14	.29	.23	.87
아버지 과잉간섭	-.31	.58	.28	.73	-.06	.33	.03	.95
아버지 방임	1.84	.62	8.88**	6.31	-.04	.32	.02	.96
어머니 애정	.17	.43	.15	1.18	.70	.37	3.62	1.90
어머니 학대	1.05	.60	3.11	2.85	-.48	.35	1.88	.61
어머니 과잉간섭	.07	.59	.01	1.07	.35	.34	1.04	1.41
어머니 방임	-1.66	.68	5.96*	.19	-.07	.35	.04	.94
교우관계	.56	.45	1.54	1.74	.30	.30	.97	1.35
교사에 대한 지각	-.56	.35	2.71	.57	-.44	.29	3.41	.65
학교통제	.45	.99	1.12	.57	.33	.28	1.44	1.39

\* $p < .05$ , \*\* $p < .01$ , \*\*\* $p < .001$

애정적이면서도 방임적인 경우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의  $Exp(B)$  은 각각 5.33, 7.90과 6.31이었다.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족구조와 공격성이 가정복귀 가능성과 모두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결손가정이 아닐수록, 그리고 공격성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구조의  $Exp(B)$  값은 .33으로 이는 결손 가정 출신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가정복귀를 할 가능성은 양친가정 출신의 33%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 양친가정 출신인 경우 가정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결손가정 출신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격성의  $Exp(B)$  값은 .40이었다. 한편 충동성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가정복귀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Exp(B)$  값은 각각 2.03과 2.40이었다.

## 논 의

이상의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으로 복귀한 가출경험 청소년과 쉼터에 머무르는 가출청소년의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요인에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복귀집단과 쉼터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공격성에서만 나타나 쉼터집단이 복귀집단보다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역기능적인 가정환경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욕구좌절, 분노, 반항심 등의 감정으로 인한 공격성과(김재엽·송아영, 2007)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가출 상태인 쉼터청소년들이 가정환경을 통한 내면의

상처와 좌절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주장을 위한 소통의 방법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선택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쉼터집단의 가정환경변인에 대한 결과와 관련지어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

학교급에 의한 차이는 자아존중감에서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중학교 청소년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걸쳐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정익중(200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2, 3학년의 가출경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과 복귀여부의 상호작용효과도 자아존중감에서만 나타났는데, 중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쉼터집단이 복귀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 반면 이러한 차이가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정미선(2010)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경우 쉼터집단이 복귀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쉼터의 특성이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요인을 살펴본 결과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집단에게서 결손가정 출신 비

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Peled 등(2003)의 연구나 여성가족부(2010)의 실태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가정경제 수준을 살펴보면 쉼터 청소년들이 가정경제 상태를 더 낮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고 양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 만성가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연구결과(박영호, 김태익, 2002; 백혜정, 방은령,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같은 맥락에서 Thompson 등(2003)은 부모의 실직도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정불화와 같은 가정 내의 여러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다른 가정환경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가정복귀 청소년들이 아버지, 어머니 애정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쉼터 청소년들이 아버지, 어머니 방임, 아버지의 학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부모의 심리적, 신체적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가출을 시도한 경우에는 가정으로의 복귀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보고한 Nebbitt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정도는 낮고, 학대 및 방임 정도는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는 백혜정과 방은령(200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요인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출청소년의 가정으로의 복귀여부를 예측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중학교 청소년들에게서는 가정환경변인만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에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서는 가정환경변인 외에도 개인적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정환경요인 중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모두에게서 가정복귀가능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에 가족구조와 복귀가능성은 부적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결손가정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가정 지원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결손가정 출신이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고등학교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가정복귀를 예측하는 요인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 애정과 방임, 그리고 어머니의 방임과 같은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된 요인들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충동성,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Bloss가 청소년 초기와 중기의 차이를 설명한 것과(Fend, 2005, 재인용) 관련지어 논의를 할 수 있다.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청소년 초기에서 청소년 중기로의 이행기에는 부모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가정으로부터의 보호를 벗어나 자신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도를 하고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형성한 초자아를 자신이 형성한 자아이상으로 대체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정환경보다는 자기 자신으로 귀인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스스로 만들어내 자아이상 때문에 한편으로는 힘들어 하고 내면화된 문제 즉 우울과 불안 혹은 공격성 외에도 가출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Grob & Jaschinski, 2003).

흥미로운 점은 중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복귀 가능성과 어머니의 방임은 부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에 아버지의 애정과 방임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가출한 후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자녀를 잘 챙기는 한편 아버지는 따뜻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심한 통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춘기 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의 조언이나 충고를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 처벌보다는 오히려 자녀를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것이 이들의 가정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혜정과 방은령(2009)이 가출청소년들이 귀가를 한 후 엄격한 규제가 가해질 경우 가출했을 당시의 자유로움이 그리워 재가출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Stein, Milburn, Zane과 Rotheram-Borus(2009)도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을 통해 아버지와의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나 일탈행위의 예방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며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것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중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개인적 요인이 가정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가정환경변인만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출과 청소년의 독립성 획득의 관계를 탐색한 Crespi와 Sabatelli(1993)는 애착이론에 기초하여 가족체계의 역동성과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과정, 그리고 가출행위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자는 청소년들이 나이에 맞게 자율성을 획득하면서도 가족과의 친밀성

유지의 균형을 찾는 발달과업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갈등, 지나친 간섭,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율성과 친밀성의 균형이 깨졌을 때 가족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가출과 같은 갈등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가족체계의 역동성과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과정의 관계에서 가출의 심리적 메카니즘은 독립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분리의 과정임과 동시에 갈등과 거부적 가족관계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중학교 가출청소년을 위한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정환경요인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현지(2005)의 가정복귀 사례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귀가 후 가정의 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오승환(2010)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 방안이 위기청소년 당사자 개인에 집중되어 있고 가족에 대한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손가정과 같은 가족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출을 예방하고 또 가출을 했다고 해도 이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개인적 변인 중 공격성과 충동성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동성이 가정으로

의 복귀 가능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공격성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가정복귀와 충동성의 정적인 관계를 인과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충동적으로 가출을 시도한 청소년들은 비교적 쉽게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따른 억제효과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제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격성과 가정복귀의 부적인 관계를 기초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의 갈등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가출을 했을 경우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가정으로 복귀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미 가출한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가정으로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획득하거나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 작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경우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이 결여되어 자주 갈등관계에 노출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Edelbrock, 1980; Crespi & Sabatelli, 1993). 따라서 갈등해결이나 스트레스 대처 훈련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분노감정을 조절하는 전략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가출청소년들의 보호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문제해결과 계획능력이 가출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한

연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Lightfoot, Stein, Tevendale, & Preston, 2011).

한편 본 연구에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집단구별 정확도나 설명력이 중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들 외에도 다른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해 대인관계기술이나 경제적 자립 가능성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에 영향이 있다고 한 변인들을 포함한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미는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와 관련된 요인을 발달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는 이미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조기에 가정과 학교로 복귀를 하고 반복적인 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함에 있어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가정복귀 청소년과 쉼터 청소년만을 비교하여 분석한 것에 그쳤고, 이와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이른바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가출횟수나 기간 그리고 복귀기간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복귀상태임에도 또 다시 가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재 쉼터에 머무르고 있지만 과거 가정으로 복귀를 했었거나 혹은 단시일 내에 가정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하여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이력과 가능성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연구설계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 복귀의사가 있으나 아직 가정으로 복귀를 하지 않은 청소년, 그리고 가정복귀 의사가 전혀 없는 청소년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복귀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으로 복귀를 한 후에 심리적 상태와 제반 환경요인들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중단 연구를 통해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과정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경희, 김희영, 김수강 (2007). 중학생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4), 1-11.
- 김은영, 송민경 (2008). 단기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귀가 결정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청소년학연구*, 16(1), 343-370.
- 김재엽, 송아영 (2007).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99-125.
- 김향초 (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 문재우 (2012).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8(1), 19-34.
- 박명숙 (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1), 85-106.
- 박영호, 김태익 (2002). 가출예측척도에 의한 여중생들의 가출요인분석. *청소년 상담연구*, 10(2), 81-89.
- 방은령 (2003).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모색: 가출경험 대학생과 가출청소년전문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0.
- 안창규, 문선화, 전윤식 (1995). *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서울: 집문당.
- 여성가족부 (2010).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 오승환 (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2(4), 301-324.
- 이상무 (2012). 생태체계요인이 가출유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2), 127-148.
- 이상무, 남상희 (2012). 청소년 가출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 연구* 19(1), 85-108.
- 이애령 (2003).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화, 김경희, 김희영, 정혜경 (2006). 여자 고등학생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 연구*, 13(3), 161-179.
- 이현지 (2005). 가출청소년 재가출방지를 위한 지지체계의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2(3), 283-304.
- 정경은, 문성호 (2008). 청소년가출에 대한 동향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1), 219-241.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40-170.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 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조윤정 (2000). 남자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동범, 임성택 (2009).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이 가출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51-7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차명호, 양정국, 정경용 (2010). 청소년의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분석. *소년보호연구*, 15, 165-192. 한
- 한상철 (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73-298.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현은민 (2000). 청소년의 가출: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4), 41-51.
- 홍세희, 노연경, 박민선 (2010). 청소년 가출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생태체계적 변수들과의 관련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7(2), 181-201.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respi, T. D., & Sabatelli, R. M. (1993). Adolescent runaways and family strife: A conflict-induced differentiation framework. *Adolescence*, 28(4) 867-879.
- Dekel, R., Peled, E., & Spiro, S. E. (2003). Shelters of houseless youth: A follow-up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6(2), 201-212.
- Edelbrock, C. (1980). Running away from home: Incidence and correlates among children and youth referred for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Family issues*, 1(2), 210-228.
- Fend, H. (2005). *Entwicklungspsychologie Jugendalters*. Wiesbaden: VS Verlag.
- Grob, A., & Jaschinski, U. (2003). *Erwachsen werden*. Weinheim: Beltz.
- Johnson, K. D., Whitbeck, L. B., & Hoyt, D. R. (2005). Predictors of social network composition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8(2), 231-248.
- Khurana, S., Sharma, N., Jena, S., Saha, R., & Ingle, G. K. (2004). Mental health status of runaway adolescents. *Indian Journal of Pediatrics*, 71(3), 405-409.
- Lightfoot, M., Stein, J. A., Tevendale, H., & Preston, K. (2011).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Fewer Multiple Problem Behaviors Among Homeless-Runaway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6), 878-889.
- McCarthy, M. D., & Thompson, S. J. (2010). Predictors of Trauma-Related Symptoms Among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3), 212-227.
- Milburn, N. G. (2007). Newly homeless youth typically return hom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0(6), 574-576.
- Nebbit, V. E., House, L. E., Thompson, S. J., & Polloi, D. E. (2007). Successful transition of runaway/homeless youth from shelter car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4), 545-555.



- Peled, E., Spiro, S.E., & Dekel, R. (2003). My home is not my castle: Follow-up of residents of shelters for homeless youth.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2(3), 257-280.
- Robins, R. W., Hendin, H. M., & Trzesniewski, K. H. (2001). Measuring global self-esteem: Construct validation of a single-item measure and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2), 151-161.
- Slesnick, N., & Prestopnik, J. L. (2004). Office versus home-based family therapy for runaway, alcohol abusing adolescents: Examinati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treatment attendanc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22(1), 3-19.
- Stein, J. A., Milburn, N. G., Zane, J. I., & Rotheram-Borus, M. J. (2009). Paternal and Maternal Influences on Problem Behaviors Among Homeless and Runaway Yout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1), 39-50.
- Thompson, S. J., Kost, K. A., & Pollio, D. E. (2003). Examining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family reunification for runaway youth: Does ethnicity matter? *Family Relations*, 52(3), 296-304.
- Thompson S. J., & Pillai, V. (2006). Determinants of runaway episodes among adolescents using crisis shelter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1), 142-149.
- Thompson, S. J., Safyer, A., & Pollio, D. E. (2001). Differences and predictors of family reunification among subgroups of runaway youth using shelter services. *Social Work Research*, 25(2), 163-172.
- Thompson, S., Zittel-Palamara, K. M., & Maccio, E. M. (2004). Runaway Youth Utilizing Crisis Shelter Services: Predictors of Presenting Problems. *Child & Youth Care Forum*, 33(6), 387-404.
- Yoder, K. A., Hoyt, D. R., & Whitbeck, L. B. (1998). Suicidal behavior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6), 753-771.

1차원고접수 : 2014. 07. 09.

수정원고접수 : 2014. 09. 03.

최종게재결정 : 2014. 09. 05.

The factors affecting highschool runaway  
adolescents' returning home:  
Individual, home environment, and school factors

Kim, Hye-On

Department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Jeong, Jeong-Sook

Mokpo Yudal Female  
Adolescents' Short-Term Shel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unaway adolescent' intention to return home. A total of 438 runaway adolescents from 42 shelters and 12 high schools were included in the study sample. Among them, 211 participants had returned home and 227 participants remained in shelter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that covered individual factors, home environment, and school factors.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a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chi-square ( $\chi^2$ ) test,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The two-way ANOVA and  $\chi^2$  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turnees and shelter adolescents in terms of aggression, family structure, economic status, some parenting attitudes (father's and mother's affection, negligence, father's abuse), and peer relationships. We also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runaway adolescents in relation to self-esteem.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home environment factors were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s of runaway adolescents' returning home. In particular, broken homes had the strongest negative effect, while economic status had positive effect. Whereas for junior high school returnees, parenting attitudes, such as father's affection, negligence, and mother's negligenc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senior highschool returnees individual factors like aggression and impulsiveness were significant.

*Key words* : *highschool runaway adolescents, returning home factors, individual factors, home environment, school factors*